마중여행사 문의:02-730-2270
시베리아횡단열차 타고 바이칼호수로 겨울여행 8일
2019년 2/12, 2/19 출발

비즈 프리즘 | 연말 인사철 화제 모은 '구광모 체제' LG

"기업 혁신역량 강화라면 외부 전문가도 OK"

경영기획팀장 등 핵심 보직 파격 발탁
그룹 '순혈주의' 깨고 미래 위한 행보
스마트폰 사업, 1년 만에 사령탑 교체

구광모 LG그룹 회장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 흰고양이 가릴 필요가 없다."

LG그룹이 덩샤오핑의 유명한 흑묘백묘론을 연상시키는 파격적인 인사로 화제다. LG그룹 지주사 ㈜LG는 28일 이사회를 통해 2019년 정기임원인사를 단행했다.

본격적인 '구광모 체제'로 나선 LG그룹의 미래 행보를 엿볼 수 있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그룹 핵심 조직과 미래 전략사업 파트에 외부 전문가를 과감하게 영입한 것.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총괄할 사장급 경영전략팀장에 홍범식(51) 베인&컴퍼니 코리아 대표를 영입한 것을 비롯해 미래 유망산업으로 국내 기업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자동차부품팀장(부사장)에는 김형남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임명했다. 또한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력을 양성할 인재육성 담당 상무에는 김이경 이베이코리아 인사부문장을 영입했다.

㈜LG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 것에 대해 "사업포트폴리오 강화, 인재육성 등 지주사의 역할을 강화하며, 계열사 사업과 사람에 대한 미래준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한편 경영진의 변화를 꾀하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LG그룹은 이에 앞서 LG화학 부회장에 3M의 신학철 수석부회장을 영입하는 등 구광모 회장이 그룹을 이끈 이후 '순혈주의'에 매달리지 않고 조직에 신선한 자극과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LG전자는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업 부문의 수장을 1년만에 다시 교체했다. LG전자는 28일 임원인사를 통해 HE사업본부장인 권봉석 사장이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사업본부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LG그룹에서 두 개 사업본부의 사령탑을 한 명이 겸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가 전례가 없는 사업본부장 겸임카드까지 꺼낸 것은 그만큼 스마트폰 사업 부진 탈출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방증이다. 내년 본격적으로 다가올 5G 시대를 앞두고 TV사업에서 역량을 보여준 권봉석 사장에게 부진 탈출의 임무를 맡긴 것이다. 권 사장이 담당하는 HE사업본부가 담당하는 TV는 올레드(OLED) TV를 통해 LG전자의 호성적을 주도해 왔다. 반면 MC사업본부는 프리미엄폰 G시리즈와 V시리즈가 부진을 거듭하면서 1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8일

코스피지수	2108.22	▲	+8.80
코스닥지수	700.12	▼	-0.55
日 닛케이 지수	2만2177.02	▲	+224.62
中 상하이 종합	2601.74	▲	+27.06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920	▲	+0.012
환율 (원·달러)	1126.5	▼	-2.9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3998.99	▼	-347.21

애경산업-삼성카드, 반려동물사업 제휴

애경산업과 삼성카드가 28일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에서 반려동물 관련 공동 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반려동물을 공동사업 영역으로 정하고 애경산업의 프리미엄 펫 케어 브랜드 '휘슬'과 삼성카드의 반려동물 온라인 커뮤니티 '아지냥이'를 통해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사회공헌 등 다양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애경 측은 "반려동물의 본성을 먼저 생각하는 휘슬과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추구하는 아지냥이를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회사 밖에서 새 창업"…코오롱 이웅열 회장, 전격 경영퇴진

내년 1월1일 그룹 모든 직책 사퇴
장남 이규호 전무, 패션사업 총괄

이웅열(63·사진) 코오롱그룹 회장이 28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전격적으로 선언해 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의 갑작스런 경영 퇴진의 배경과 함께 이후 경영권 승계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장남인 이규호(35) 전무의 향후 행보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코오롱그룹을 23년 간 이끈 이웅열 회장은 내년 1월1일부터 그룹 회장직을 비롯해 지주회사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계열사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다. 이웅열 회장은 28일 오전 그룹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퇴임을 밝혔다.

특히 그는 퇴임을 밝히면서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새롭게 창업의 길을 가겠다"며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코오롱 밖에서 펼쳐보려 한다"며 경영 은퇴가 아닌 코오롱 밖에서의 새로운 창업의지를 천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 회장을 대신해 유석진 대표이사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고, 앞으로 유 사장이 위원장을 맡은 주요 사장단 협의체인 원&온니위원회가 그룹 현안 전반을 조율한다. 유 사장과 원&온니위원회는 장기 경영방향, 대규모 투자, 계열사간 협력 및 이해 충돌 등 주요 경영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한 장남으로 코오롱 전략기획담당을 맡고 있는 이규호 상무는 전무로 승진해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최고운영책임자(COO)에 임명됐다. 패션 사업 부문을 총괄 운영하며 경영수업을 쌓을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그룹 측은 "이 회장이 이 전무에게 그룹 경영권을 바로 물려주는 대신 핵심 사업부문을 총괄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토록 한 것"이라며 "그룹을 이끌 때까지 경영 경험과 능력을 충실하게 쌓아가는 과정을 중시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뮨 팀, 메이킹 모어 헬스 최종 우승

'제5회 메이킹 모어 헬스 체인지메이커'에서 ㈜뮨 팀이 최종 우승해 2000만원의 프로젝트 지원금과 프로젝트 로드맵 멘토링 워크샵 참여 기회를 얻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사단법인 아쇼카 한국과 함께 주최한 이번 헬스케어 분야 혁신기업가 발굴 프로젝트에는 45개 팀이 응모했다. ㈜뮨 팀은 의료 현장에서 주사기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의료종사자의 2차 감염을 유발하는 상해가 자주 발생된다는 점에 주목해 주사기 자동처리 기기를 개발했다. 정용운 기자

홈플러스, 무기계약직 및 협력사 직원 정규직 전환

올해 정규직 전환 총 1200명 넘어

홈플러스(사진)가 12월1일자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에서 12년 이상 장기근속한 무기계약직 직원 6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또한 계약이 만료되는 경비용역업체 소속 일부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한다.

홈플러스는 현재 기존 홈플러스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등 2개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정규직 전환에 앞서 7월에는 홈플러스스토어즈 소속 4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12월 인사를 포함해 올해 홈플러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은 총 1200명이 넘는다.

정규직 전환자는 기존 정규직 직급인 선임 연봉체계를 따르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받던 근속수당은 새 연봉에 모두 반영한다. 또한 직책수당도 추가된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어려워진 경영여건을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노사간의 적극적인 대화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교육·퍼즐

에듀윌

부동산 실무대학 특강

공인중개사 실무, 나만의 중개 노하우 가지려면 주목

기업 채용에 도전하는 대신 중개업이나 관련 공인중개사 분야의 전문직을 노리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10월 치러진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만 보더라도 20~30대 연령층 응시자가 1차 시험 기준 8만 명이 넘게 되면서 전체 인원의 40%를 웃돌았다.

젊은 층의 공인중개사 도전은 그 자체로 부동산 시장에 신선한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 것이 사실이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익숙한 젊은 세대가 새로운 공인중개사 산업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청년 공인중개사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각자가 가진 장점에 맞게 특별한 실무적 요소를 하나씩 갖춰 공동으로 창업하기도 한다. 당연히 창업 경쟁력도 높은 편이다.

이처럼 공인중개사 창업시장의 새 바람은, 노후 자격증으로 만만히 생각했던 취득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이다. 취득 이후에도 실무에서 나만의 '중개 노하우'를 갖추는 것이 현업에서의 매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에듀윌은 '부동산 실무대학 특강'을 열고 예비 공인중개사 취업·창업 준비생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전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필수 부동산 실무지식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싶은 현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해당 과정은 경매, 토지, 계약서 등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특강을 제공하기 위해 개설됐다. 경매 전문가로 가는 핵심 비법과 토지의 미래가치 분석 방법,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정확한 계약서 작성 등 나만의 실전 창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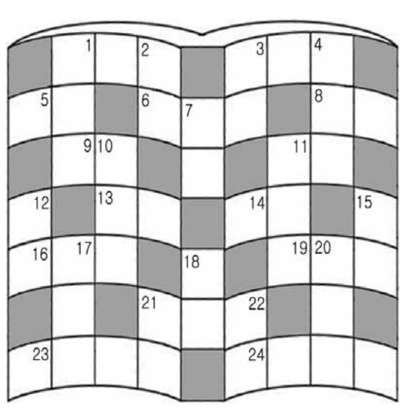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다음 문제의 열쇠를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보세요.

■ 낱말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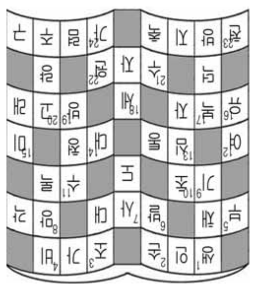


■ 가로 열쇠

01.손가락 끝에 나는 종기. **03.**조개의 껍데기. **05.**남에게 빚을 짐. 또는 그 빚. **06.**미사일, 로켓, 광선 따위를 쏘기 위하여 고정시켜 놓는 받침대. **08.**어떤 일이나 사실을 잊어 버림. **09.**건조물·구축물 따위의 무게를 받치기 위해 만든 바닥. **11.**모아 거두어 기록함. **13.**악하고 고약한 마음보. **14.**한옥에서, 몸채의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 **16.**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읜 자식. **19.**의 구들장 밑으로 나 있는, 불길과 연기가 통하여 나가는 길. **21.**농업·공업·발전용 따위의 자원이 되는 물. **23.**너무 급하여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함부로 날뛰는 일. **24.**세금을 혹독하게 거두고, 재물을 강제로 빼앗음.

■ 세로 열쇠

01.손톱 따위로 할퀴어지거나 긁혀서 생긴 작은 상처. **02.**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의 비유. **03.**낚시질하는 곳. **04.**잊지 않으려고 적어 둔 기록이나 책자. **07.**선비로서 마땅히 지킬 도리. **10.**어떤 일을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 **11.**관청에서 청지기가 거처하던 방. **12.**경제적·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 **15.**앞으로 올 때. 앞날. **17.**가옥이나 토지 등의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곳. **18.**왕위를 이을 왕자. **20.**수수를 원료로 하여 빚은 중국식 증류주. **21.**부피나 규모가 줄어듦. **22.**본디 사들일 때의 값.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가운데줄을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스트셀러 제목이 됩니다.